



협회뉴스 증양회 박기준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중앙회장은 1월 12일 우리업계의 대표신문인 석유가스신문(조은영 기자), 가스산업신문(강은철 기자), 한국가스신문(이신재 기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신년사와 관련하여, 열관리회장이 한국가스신문과 대담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년사에서 밝힌 새해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일러 설비업을 규제하고 시공인의 이익이 침해 당하는 어떠한 법령의 개정 움직임에도 과감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고 “국가 인정기능사의 법적지위향상과 난방시공업 1·2종의 통합,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기능사를 보호하기 위한 양성교육의 폐지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

다.

또한 그동안 보협증권발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일러 관말연결비를 안전점검비로 바꿔 지역관리소와의 마찰도 해소하고 냉난방기술 뿐만 아니라 가구·주방기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종합인테리어 기술교육도 실시해 보일러 설비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업계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기자들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



www.nanbang.or.kr

석유가스신문

2009년 1월 17일 [이요일] 두리 309호

보일러설비協, 신년사업두고 '신경전'

시공업 통합 등에 열관리시공協 대립각

보일러설비협회(이하 열협)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열관리시공협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교육 폐지 놓고도 갈등 심화

양성교육 폐지 여부를 놓고 열협과 열관리시공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열협은 양성교육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관리시공협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양 협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양성교육 폐지 여부를 놓고 열협과 열관리시공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열협은 양성교육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관리시공협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양 협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韓國가스新聞

가스사를 보호하기 위해 양심교육의 폐지문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열관리시공협회의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양심교육 폐지문제가 대안 없이 보인리협회 박기준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합력' 중 '양심교육 폐지'가 주목된다. 열협은 양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양성교육 지속은 기득권 유지 의도" "양성교육 폐지는 특정자격자만 보호"

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은 양심교육 폐지 추진에 대해 신년사에서 "양심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 의도"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양심교육 폐지가 특정자격자만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협은 양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열협은 양심교육이 양심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하면 양심직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보인리협회가 시공업자 단체로서 양심교육을 폐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시공업자 단체로서의 관련 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열협은 양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열협은 양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열협은 양심교육이 양심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하면 양심직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준 회장은 "양심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 의도"라고 밝혔다. 열협은 양심교육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가스신문

2009년 1월 17일

"기술인력 양성교육 폐지해야"

올해 '협회 홍보의 해'로 정해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의 기사내용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협은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열관리시공협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